

# 코로나19 대유행 시 일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연구

김 지 향\* · 한 숙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2일에 홍콩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세 번째로 판데믹(pandemic)선언을 한 바 있다(Kim & Lee, 2020).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12월 16일 기준 총 45,4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12명이 사망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코로나19 유행으로 초기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 접촉자 방문지역 폐쇄 및 집단 감염시설 코호트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났다(Choi, 2020). 2015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을 겪는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Lee, Kim, & Kang, 2016)에 의하면 연구참여자의 90%가 본인 또는 가족

이 메르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46%가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렇듯 신종감염병의 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이에 따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위협 인식은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경험, 사회적인 배경, 감정적 요인, 역사적인 맥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won, 2019). 특히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들은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Lee, Kim, & Kang, 2016).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들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입원 중이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Jung & Jung, 2013)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일반인보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법 제 34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듯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의 성격을 가진다(Lee & Lee,

\*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https://orcid.org/0000-0002-9134-5201>)

\*\*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https://orcid.org/0000-0002-8824-2199>) (교신저자 E-mail: hansj@syu.ac.kr)

• Received: 28 December 2020 • Revised: 11 March 2021 • Accepted: 15 March 202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an, Suk Jung

Sahmyook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1795

Tel: +82-2-3399-1591 Fax: +82-2-3399-1594 E-mail: hansj@syu.ac.kr

2020). 노인요양시설의 다양한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Lee, Park, & Hwang, 2020),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ee, Lee, & Hwang, 2017). 실습을 포함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학력 기준은 없다(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0). 2008년 7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로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5,287개에 달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도 2018년 기준 177,318명에 달하고 있다(Lim & Chang, 2020). 노인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인 만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Park, Lim, Cho, Sin, & Kim, 2011). 실제로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보면 콜센터, 교회,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으며, 총 확진자 45,442명 중 51.8%인 23,550명에 이른다. 특히 집단감염 중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이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은 입소자, 종사자 혹은 방문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Park, Lim, Cho, Sin, & Kim, 2011) 각 시도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면회를 제한하거나 비대면 면회를 실시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출퇴근하는 종사자들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 학생, 노인, 간호사 등(Choi, 2020; Jung, 2020; Lee & Kang, 2020; Choi & Lee, 2020) 다양한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해 감염병 유행 시 간호사의 효과적인 요양보호사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란 무엇인가?”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을 대상자 개개인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보편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 이들의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질적 서술적 연구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일개 노인요양원에서 6개월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자를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표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현상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포함되었던 참여자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5.4세, 평균 경력은 3년 9개월이었다.

### 3.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현재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간호 관리자로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환경과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가 가진 선입견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업을 수강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습득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서적과 온라인 강의,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하였으며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분석력과 해석력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참여 거절에 대한 권리,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녹취와 대화일지 기록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해당 요양원의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여 참여자가 긴장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진행했다.

면담 소요시간은 1회당 50분에서 70분 정도였으며 평균 1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중에 요양원 종사자로서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추가 질문의 예로는 “다른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코호트 격리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을 거 같나요?” 등이 있었다. 면담 이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녹취된 자료를 전사하여 반복해 읽으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차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감염병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 방법 중 Colaizzi의 분석 방법(Colaizzi, 197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로 제 1단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녹음자료는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즉시 필사하였고, 대상자의 비언어적 정보가 기록된 연구 노트를 비교하여 녹취록을 완성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제 2단계는 녹취록에서 감염병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을 진술한 문장이나 어구를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문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문구로 재 진술하고 추상화하며 현상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제 4단계, 도출된 의미들을 통합, 분류하여 부 주제(sub-theme)로 선정하고, 유사한 부 주제들을 함께 묶어 주제(theme)로 도출하고, 주제를 주제모음(theme cluster)으로 조직한 후 이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을 최종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단계에서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와 질적 연구 전문가 2인에게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6.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본 연구의 신뢰도는 Guba와 Lincoln(Guba & Lincoln, 198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과의 면담 전에 연구 주제와 관련된 편견을 배제하고자 문헌고찰을 최소화 하였으며, 자료 분석이나 연구결과 해석 시에도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면담 시에는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했고, 도출된 결과를 연구 참여자의 원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높였으며, 참여자 2명에게 면담자료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및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결과를 제시하며 분석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적용성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도 Guba와 Lincoln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7.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0년 6월 22일에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2-1040781-A-N-012020027HR)을 받았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녹취 및 대화 일지 기록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 관리할 예정이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논문 작성 후 3년간 보관 뒤에 폐기할 예정인 것과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인 동의하에 참여한 경우에도 면담 도중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해당 요양원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다.

## III. 연구 결과

8명의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코로나19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경험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모음, 21개의 주제, 49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 1. 주제모음 1. 감염병으로 인한 두려움

#### 1) 주제 1. 사망으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예상외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도 균이 있을 것 같은 걱정을 계속하게 되었다.

*“길어지니까... 일상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착이 되버릴까봐 그게 겁나고... 굉장히 이렇게 차단되고 제한된 느낌?... 그 균이라는게 너무 미세해서 어디서 문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어디에서 문혀올지도 모르고.”(참여자 7)*

*“계속 엉뚱한 데서 막 터지고 이러니까, 생각지도 않은데서 평평 터지고 이러니까 무섭기도 하고.”(참여자 8)*

2) 주제 2.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에서 느끼는 불안감  
참여자들은 다른 요양원의 코호트 격리 소식을 직장 내 메신저나 마스크를 통해 접하며 요양원의 특성상 확진자가 나오면 코호트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다른 세상 얘기같이 느껴졌던 코로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실감했다.

*“다른 요양원들 코호트 격리 소식을 직장 내 단독방에서 접하면 우리 기관도 당할 수 있구나(코호트 격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그냥 피부로 느껴졌어요.”(참여자 4)*

*“요즘에는 조금 옥죄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가)너무 근처에 있다는 그런 생각?... 점점 숨이 막혀오는듯한 느낌?...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는 살짝 좀(나와는) 먼 거 같고, 내가 피하면 될 거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내 옆에 있구나라는 느낌 있잖아요.”(참여자 2)*

#### 3) 주제 3. 자신의 감염으로 초래될 직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지각한 상황에서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직장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 내 첫 번째 감염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언급하였으며 ‘끔찍하다’, ‘치욕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첫 감염자가 되는 경우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

은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무서웠어요. 나로 인해서 타인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또 무섭고 겁나고.” (참여자 8)

“젤 무서웠던 거는 우리 요양원 1호 (코로나) 감염자가 되는 거, 여기 1호 감염자 그건 완전 불명예잖아 요... 진짜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몸서리치며)... 그게 젤 치욕이죠 치욕 진짜. 나 그때 코호트 격리 되면 끔

찍하잖아요. 그 원망을 어떻게 다(감당해요). 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 보다 그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게 너 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못 살거 같아요.”(참여자 4)

“진짜 끔찍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거의 80명이 되고 어르신도 100명이 넘잖아요. 진짜 그 화살을 다 어디로 받아. 이제 나오지도 못할뿐더러 만약에 격리한다해도 여기 못 나오겠지. 퇴사를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참여자 8)

Table 1. Experiences of those who Take Care of the Elderly at Long Term Care Fac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ear from infectious disease	Fear of changed lives from COVID-19 outbreak	Scared from rapidly changed life Scared from continued spread
	Anxiety of nursing homes vulnerable to infection	Scared of COVID-19 infection from work and cohort isolation Suffocation effects of COVID-19
	Fear of harming workplace with one's own infection	Recognizing the risk factors as a care giver Concerns about the repercussions of one's infection Burden of being branded as the first infected in workplace
Reflections on life changed by infectious disease	Relationship changed by COVID-19	Relationship grown apart by COVID-19 Family grown intimate by COVID-19
	Negativity caused by narrowed radius of action	Depression by the limited radius of action Frustrated by staying at home
	Dissatisfaction with society	Disappointed over policies that do not reflect the voices of the public Hurt by being criticized made on care givers
	Accustomed disinfection culture	Inconvenient but accustomed disinfection precautions Preventive measures to be continued even after COVID-19 ends
	Living a positive life	Overcoming depression by seeking comfort Ongoing effort for positive life
Protect nursing home with the nurses at COVID-19 sites	Understanding others	Taking care of elderly and parents who are vulnerable to COVID-19 Compassion for all who suffer from the COVID-19
	Looking back on life and thinking about future	Understanding being the weak COVID-19, just another passing part of life Seeing the next generation as a group that needs protection
	Nurse as guardian of essential anti-infection guidelines	Nurse repeatedly educating preventions Nurse instructing and managing disinfection
The safety of nursing home	Nurse as a professional	Nurse kindly carefully treating the elderly Nurse thoroughly and carefully carrying out disinfection guidelines
	Nurse as a model co-worker	Someone you can learn from Someone you can run to and rely on in a crisis
The safety of nursing home	Rather safe nursing home	Stability from sufficient supplies and through disinfection measures Financial stability
	Sense of belonging	A sense of relief from being taken cared of Gratitude from constant care

2. 주제모음 2. 감염병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한 성찰

1) 주제 4.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인간관계

참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꼈으나 외출을 자제하게 됨에 따라 가족끼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 간에 더욱 친밀해지는 경험을 했다.

“친구들하고...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데 그걸 못 만나니까.”(참여자 2)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준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다.... 딱 격리되어 일하고 그거만 하면 되니까 집안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 하나 더 하게 되고, 남편한테 반찬 하나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

2) 주제 5. 좁아진 행동반경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참여자들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외출 제한 조치를 지키면서 친지 방문과 외식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감과 더불어 약간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살짝은 우울하죠. 분위기상 우울감은 조금 있어요... 격리되고 딱 선이 그어졌다는거... 내가 안하는거랑 못하는거랑은 다르니까.”(참여자 5)

“(쉬는 날)엄마한테 가려고 날 잡아 놓은거야 그게 생신이라서.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냥 집에서 3일동안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막 뚫어오르더라고요 막.”(참여자 3)

3) 주제 6. 사회에 대한 불만

참여자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요양보호사를 한 명의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비난하는 마스크의 보도와 대중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뉴스에도 요양보호사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욕이 막 욕이 막 (격양된 목소리), 그런 게 무서운거예요. 사회적으로 죽임당하고 내가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요양보호사가 걸렸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못하고 다녀서 그래, 라고들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서운하죠.”(참여자 4)

Table 1. Experiences of those who Take Care of the Elderly at Long Term Care Fac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d)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A strong sense of calling for the job	Sense of duty to keep the workplace safe	Taking disinfection measures for granted
		Self-respect and responsibility as a care giver
	Indefinite longing for the end of the COVID-19	Desire to keep nursing home safe
		The awareness for being a care giver
	Voluntary efforts to prevent infection	Willingness to practice disinfection measures for early termination
		Quietly waiting for COVID-19 to pass while carrying out one's job
preventing infection as one	Eagerly wishing for early termination of COVID-19	
	Practicing restrained lifestyle as care giver	
Understanding the elderly and the family caregivers	Cheered by the Family care givers' encouragement	
	Working together with family to prevent infection	
Enhanced work ethics through crisis	Gratitude towards co-workers who cooperate to prevent infection	
	Disappointment for who fail to follow prevention measures	
	Pity for the elderly who suffer from prolonged restrictions on visitation	
	The elderly confused with non-face-to-face visitations	
	Understanding the family care givers	
	More engaged with work than before	
	Rewarded through self-improvement	

“그렇게 싸잡아서 다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개개인의 문제거든요.”(참여자 1)

4) 주제 7. 일상이 된 방역 생활 습관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에 익숙해졌으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방역 지침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몸이 움직여요. 자연적으로 마스크도 어 내가 마스크 언제 벗지 싶을 정도로 끼고 있고...그것도 버릇에 일과 중에도 또 하나가 됐네 보니까.”(참여자 5)

5) 주제 8.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참여자들은 활동 제한으로 집에 머물며 독서, 뜨개질, 텃밭 가꾸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위낙에 밝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우울하게 막 쳐져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집 안에서도 뭐라도 움직이면서 해요.”(참여자 7)

“우울감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뒷산에 좀 갔다오고 우울감 없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참여자 8)

6) 주제 9. 타인에 대한 헤아림

참여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에 취약한 친정 부모를 더 돌아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마음이 입소 노인에게 투영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코로나 유행 상황을 통해 의료진의 수고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는 뭐, 그 뭐 기저질환 그게 또 증병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엄마가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무섭긴 해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살피지게 되더라고요. 노인이니까.”(참여자 5)

“의료진 힘든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 주는데 아파서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그런 것도 보게 되는거죠.”(참여자 2)

7) 주제 10. 인생을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함

참여자들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흘러가는 인생살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코로나는 지나가는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자라야 하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등 인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사람은 참 나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코로나가) 지금은 커 보여도 길게 놓고 보면 정말 요만큼 작은 부분일거예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써야 되는 그런 애들, 그런 생각 많이 해요.”(참여자 2)

3. 주제모음 3.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지켜냄

1) 주제 11. 필수적인 감염 예방지침의 수호자로서의 간호사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의 방역 수칙 지시와 반복적인 감염 예방 교육을 통해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었다. 방역 수칙 준수가 일상이 되어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간호사의 지지를 통해 자극을 받고 방역 수칙 실천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도 무심히 지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간호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어요 자극도 되고.”(참여자 4)

2) 주제 12.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는 간호사

참여자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지켜보면서 이를 따라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입소 노인들을 대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지켜본 참여자들은 이를 본받아 입소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친절할 말투로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르신들 놀래지 않게 ‘소독하는 거예요’ 라고 ‘아프지 않을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모든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1)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씻고 더 생각하고 그러지만 선생님들도 하는 거 보고 아차 우리도 손 또 씻어야지.”(참여자 7)

3) 주제 13.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본보기가 되는 간호사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에게 간호사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들은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배우고 본받고 싶어 했다.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고 싶을 때도 많죠. 본받을 것도 많고.”(참여자 7)

“나나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다 싶을 때 우선 생각나고 달려가서 의지할 수 있는 게 간호사 선생님들이니까.”(참여자 4)

4. 주제모음 4. 코로나19로부터 울타리가 되어 준 요양원

1) 주제 14. 오히려 안전한 요양원

참여자들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도 매일 마스크를 제공 받고, 손 세정제를 끊임없이 공급받았으며, 계속되는 감염 예방교육과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경험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쫓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있었고 손 많이 씻고 더 위생에 신경 쓰고 그래서... 집에서 뭐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다 일하면서 여기서 깨끗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거 같습니다.”(참여자 1)

“외부사람을 차단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보호자들이 어떻게 또 사방팔방에서 다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고 면(외부사람을 차단한 것)에서는 안정이 되더라고요.”(참여자 8)

“우리는 월급이 삭감이 안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지고 삭감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일을 했잖아요.”(참여자 3)

2) 주제 15. 감사한 소속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요양원이라는 업무 환경이 두려웠으나 취약한 만큼 만전을 기하는 예방조치들을 통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일터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예민하게 대처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나도 이제 이런 요양원에 와 가지고 나름 보살핌을 받는다...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참여자 5)

“시설에서 종사하는 게 그래도 그런저런 관리 하에 있으니까 나도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감사했어요.”(참여자 7)

5. 주제모음 5. 직업에 대한 굳건한 소명 의식

1) 주제 16. 일터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속한 요양원과 입소 노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르신들이 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전염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시달리는 일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가 생긴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지.” (참여자 4)

“아무래도 이런 일(요양원 요양보호사) 안하면 자신만 가족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 지금은(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참여자 8)

2) 주제 17.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하염없는 기다림

참여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부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 먼저 어디 가지 않고...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6)

“바람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말 험하고 (코로나가) 날아가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참여자 5)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족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동물 키우니까 동물을 위한 거, 고거 위주로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참여자 1)

### 3) 주제 18. 감염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참여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활동을 제한하고, 집에서도 청소와 방역에 힘쓰며 지인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출퇴근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걱정되어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 출근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보호자들의 전화를 통한 격려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다.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참여자 1)

“그게 어디서 지금 깜깜이 코로나(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라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가면) 한 시간 거리 돼서 사실 그게 그 먼 거리거든요... 차를 안 타고 걸어서 다녀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참여자 6)

### 4) 주제 19.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하는 감염 예방

참여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직장동료들, 가족들과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손 씻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딸과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이 외출할 때는 서로의 마스크를 챙겼다. 직장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으며, 요양원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속상함을 느꼈다.

“가족들끼리 나갈 때 마스크 꼭 서로 챙겨주고 또 있으면 사오라고 얘기하고 또 갔다 와서 이제 손씻기하고 웬만하면 멀리 가지 않게 해요. 주위에서만 이제 다니

고, 대중교통 이용 안하기.”(참여자 8)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제한하더라도 구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모임도 많이 제한하고 나 때문에 무슨 일(요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일)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참여자 7)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막 지적하고 싶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요양원 기관 같은 데는 그 내가 걸려서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그게 전파가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인데.”(참여자 6)

### 5) 주제 20.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마음을 헤아림

참여자들은 코로나 유행 상황으로 면회 제한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입소 노인들이 우울감에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치매로 인해 보호자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노인들의 질문이 귀찮지 않고 안타까웠으며, 비대면 면회가 실시된 후에도 보호자를 만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보며 속상해했다. 또한 부모를 만나지 못해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의 안타깝고 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감정기복을 보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던 자식들이 안 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는 게 참 힘들고.”(참여자 2)

“어르신들한테 이 전염병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 때가 제일 난감하고 미안하고 안스럽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안 오는지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는데 또 금세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깐요. 그런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참여자 4)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보호자님들이. 몇 개월 동안(어르신들을) 못 보고 계시는데.”(참여자 6)

### 6) 주제 21. 위기를 통해 강화된 직업의식

요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몰입하며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자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만큼 입소 노인을 더 세심하게 돌보며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보호자들이 안 와서 참견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한테

테 더 집중하게 되요. 그래서 더 이렇게(세심하게) 보게 되고 (어르신들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제(그런 것들을 알게되는 게) 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1월부터 지금까지 저 좀 (요양보호사로서) 발전된 거 같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1)

#### I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8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주제모음, 21개의 주제, 49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코로나19의 유행 당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의 본질은 동료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으며(Choi, 2020),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관리직 간호사들이 집단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Choi & Lee, 2020).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인이 감염되어 요양원에 피해를 주는 것과 요양원 첫 번째 감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 결과에도 언급된 바 있으며(Choi, 2020),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감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피 현상과 비난 여론 조성으로 인한 낙인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Kim & Ham, 2017). 또한 모든 참여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스스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 절제된 생활을 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홍콩에서도 사스 유행 당시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연구자들이 사람을 피하고, 공공기관 이용을 자제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Lee-Baggley, DeLongis, Voorhoeave, & Greenglass, 2004).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방역 지침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 제한에 대해 경미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각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며 삶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정부의 정책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Yang, 2020). 특정 직종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연구된 바가 있으며 보육교사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을 받는 보육교사에게 감정이입하고 서운해 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Choi, 2020). 신종 감염병 유행 시 감염에 취약한 직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공익광고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고, 인간의 나약함과 후세에 대한 안타까움 등 여러모로 생각의 폭이 확장되는 성찰의 시간을 경험했으며, 향후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선행연구(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 Slovic, 1987; Fischhoff, Watson, & Hope, 1984)에서 분석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로의 위험 전파가 언급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들을 통한 반복적인 감염관리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인 감염관리 교육이 요양보호사의 감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Choi & Lee, 2020). 메르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경각심 정도가 예방행위 실천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Park, 2019).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지켜 보면서 배우고 따라 하게 되는 것들이 감염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감염관리 행위의 실천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Oh & Song, 2019).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가 감염관리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의지하고 배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는 감염병 유행 시 요양보호사 인력의 불안과 동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 실시를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의 방역 조치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요양원이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통해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업무에 몰입하고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직업의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이 인식되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심리적 안전 정도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Wang & Kim, 2018).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 안전 행위를 잘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Moon & Lee, 2019) 요양원의 근무환경에 안정감을 느낀 요양보호사들이 감염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00병상 이상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규모가 작은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경험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일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 제한점이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

보호사의 직무경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연구 결과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육과 상담,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주도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두려움, 사회에 대한 서운함,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미한 우울감 등의 경험을 하는 동시에 우울감 극복을 위한 취미 생활의 개발, 자아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한층 더 폭넓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동료들과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의식을 확고히 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요양원을 지키고 싶은 사명감을 느꼈으며, 입소 노인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자들의 마음 또한 헤아리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요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경험도 하였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긍정적인 경험 또한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데믹 상황에서의 방역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함양과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의식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취미 생활을 지원하고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간호사에 대한 업무 관련 의존도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들의 효과적인 요양보호사 교육과 모델링을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감염관리 주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미지 개선 캠페인, 처우개선, 감염병 유행 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의 사회

적 지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Choi, K. S., & Lee, K. H. (2020). Experience in responding to COVID-19 of nurse manager at a nursing hospit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1307-1322. <http://dx.doi.org/10.22143/HSS21.11.5.94>
- Choi, Y. R. (2020). A study on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 care teachers and changes in their daily routine in centers after COVID-19.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253-279. <https://doi.org/10.15409/riece.2020.22.1.12>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6): Oxford University Press.
- Fischhoff, B., Watson, S. R., & Hope, C. (1984). Defining Risk. *Policy Sciences*, 17(2), 123-139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sisco: Jossey-Boss.
- Jung, H. Y., & Jung, Y. K. (2013). Recognition and performance level of hospital infection control in nurses of long-term care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31-141.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31>
- Jung, N. H. (2020).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due to COVID19: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9), 473-479. <https://doi.org/10.5762/KAIS.2020.21.9.473>
- Kim, D. R., & Lee, M. H. (2020). Improvement of infection control system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fter the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9(3), 202-207. <https://doi.org/10.5807/kjohn.2020.29.3.202>
- Kim, Y. W., & Ham, S. K. (2017). The Effect of Narrative Reporting on Stigmatization during the MERS Incident. *Crisisonomy*, 13(1), 63-84. <http://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1.63>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Current outbreak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n. Retrieved December 16, 2020,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0). Retrieved November 17, 2020, from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
- Kwon, J. I. (2019).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risk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risk percep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Baggley, D., DeLongis, A., Voorhoeave, P., & Greenglass, E. (2004). Coping with the threa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Role of threat appraisals and coping responses in health behavior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9-23. <https://doi.org/10.1111/j.1467-839X.2004.00131.x>
- Lee, D. H., Kim, J. Y., & Kang, H. S. (2016).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55-383. <http://dx.doi.org/10.22257/kjp.2016.06.35.2.355>
- Lee, J. S., Lee, Y. M., & Hwang, R. (2017).

-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in aged care facilities: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19-33.  
<https://doi.org/10.5932/JKPHN.2017.31.1.19>
- Lee, M. H., & Lee, S. W. (2020). Culture change in nursing home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home residents.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8(1), 40-60.  
<http://dx.doi.org/10.32928/TJLTC.8.1.2>
- Lee, N. Y., & Kang, J. H.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motional change of the elderly aged 65 and older who experienced COVID-19 social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6), 171-179.  
<http://dx.doi.org/10.21184/jkeia.2020.8.14.6.171>
- Lee, S. Y., Park, S. H., & Hwang H. (2020). The impact of employment environment on care worker's period of servic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34, 91-115.  
<http://dx.doi.org/10.22589/kaocm.2020.34.91>
- Lim, S. Y., & Chang, S. O. (2020).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 for Ego-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2(2), 140-152.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40>
- Moon, M. J., & Lee, S. H. (2019).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behaviors of care work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98-108.  
<https://doi.org/10.5932/JKPHN.2019.33.1.98>
- Oh, Y. J., & Song, Y. S. (2019). The caregiver'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preventive behavior for urinary tract infec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407-21.  
<http://doi.org/10.35873/ajmahs.2019.9.10.035>
- Park, E. J., Lim, Y. J., Cho, B. H., Sin, I. J., & Kim, S. O. (2011). A survey on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workers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3(2), 79-90.
- Park, S. H. (2019).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33-46.  
<https://doi.org/10.5932/JKPHN.2019.33.1.33>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Retrieved November 1, 2020, from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0717366>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1-3): 183-203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 Wang, S. J., & Kim, T. H. (2018).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Against Disasters or Acciden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8(5), 83-88.  
<https://doi.org/10.9798/KOSHAM.2018.18.5.83>
- Yang, H. J. (2020).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3), 135-143.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135>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Long Term Care Facility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im, Ji Hyang (Master's and Doctorate integration process Student, College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Han, Suk Jung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ose who take care of the elderly at a long-term care fac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o describe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experiences of eight workers in an elderly care facility during the COVID-19 crisis. **Results:**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workers experienced 'fear from infectious disease' and had the opportunity to 'reflect upon life changed by infectious disease.' They also worked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by 'protect nursing home with the nurses at COVID-19 sites' and felt 'safety from the nursing home,' and experienced 'a strong sense of calling for the job' through the crisis. **Conclusion:** This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conducted in Korea on workers in an elderly care faci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s these workers with practical useful education, counseling, and emotional support during the epidemic.

**Key words :** COVID-19. Experience, Phenomenology, Nursing homes, Caregivers